

5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레위기 · 민수기

사도행전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총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레위기 · 민수기

사도행전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전야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⑥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능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행 2:2,3)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좁고 험한 갈보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하나님께서서는 성막에 비치되는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1~9절) 여호와와 이름에 훼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과(10~16절) 살인죄 및 상해죄에 대한 배상법들(17~23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한 사람은 둘로 처 죽이라 하시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나 상해를 입힌 대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형벌이지만 언약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생각하면 형벌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등잔불을 관리하는 자세와 진설병을 준비하는 과정은 형벌 규례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이 모든 백성들이 협력하여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적극적인 규례라면, 형벌에 대한 규례는 언약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성막에 켜져 있는 등잔의 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삶을 일깨워주고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등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요 9:5)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자기부인과 순종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꿇이지 않고 정리할찌니라”
(레 24:4)

기도 제목 ①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에게도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즉, 땅을 6년간은 파종하고 제7년째는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1~7절) 사회공동체에 대해서는 일곱 안식년 곧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여 사람과 땅 모두에게 자유와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희년이 되면 사고 팔았던 토지와 가옥들을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막고, 종들에게도 토지와 가옥과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여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 충분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희년법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희년)를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4:19)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기쁨과 소망을 가짐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며,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레 25:2)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② 모든 직분자들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따릅니다. 이 장에서 언급하는 축복에 대한 약속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평화를 허락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이행하여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나는…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12절)이라고 하십니다.(1~13절)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는 백성에게는 질병과 기근을 주시며, 교만을 꺾으십니다. 땀 흘린 수고가 헛되어 열매를 얻지 못하고 들짐승들을 보내어 가축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땅은 황무하게 되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14~39절) 그러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형벌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40~46절)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곁길로 나간 우리들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눅 15:11~32)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뿐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찌라”(레 26:3,4)

기도 제목 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람은 이웃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하며 일단 약속한 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며 때로는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약속은 매우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변경하지 못합니다.(10절) 부득이 바뀌어야 할 경우 그 값의 5분의 1을 배상해야만 합니다.(13절) 서원은 사람과 생축으로 할 수도 있고(1~13절), 가옥과 토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게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고후 9:7)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이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는 헌신은 자기 의와 공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만이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레 27:3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 중 1장에 나오는 것이 첫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해서 2년 뒤에 하는 것이고, 두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실시합니다.(민 26장)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 된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즉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족번영은 힘있는 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체인구 200만 명에서 군사가 될 수 있는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46절) 대한민국의 인구가 4,500만 명인데 군인 수는 60여만 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의 규모를 재정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키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전쟁을 겪게 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경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대장되신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민 1:4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무장이 되게 하소서. ② 피택을 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일꾼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진을 칠 때의 배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배치했습니다. 사면으로 둘러서 성막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막을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진 배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교훈은 또 있습니다. 진 배치가 모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대는 유다, 잇사갈, 스불론 지파로서 모두 레아의 몸에서 난 자손들이었고, 제이대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로서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의 몸에서 난 모두 레아 계통의 자손이었습니다. 제삼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서 라헬의 자손들로만 구성되어졌고, 제사대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서 여종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형제들을 한 진영으로 묶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의 우애를 바탕으로 단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가 화합함으로 하나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민 2:2)

기도 제목 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41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에 비해 레위인의 숫자가 적어 그 차이만큼 돈으로 바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전(贖錢)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되지 않는 차이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야속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 생명까지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자는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이들을 대신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의 수효는 2만 2천명이었습니다. 양쪽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성막의 일에 전적으로 얽매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민 3:12)

기도 제목 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2007년 선교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민수기 4장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절은 고핫 자손들 중에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를, 21~28절은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를, 29~33절은 므라리 자손들 중에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34~49절은 레위 지파의 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3절)는 말씀에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막 봉사만 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 자손이어야 하며, 선출된 사람에게는 성막에서의 사역이 각각 분담되어, 모든 사역은 아론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가 명하시는 대로, 맡겨진 직분에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찌어다”(사 52:11)라는 말씀처럼, 성소에서 일하는 자는 정결해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고핫 자손은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일할 자’로서, 언약궤(중거궤=법궤)를 지키고 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성물은 만지지 말찌니”(15절)라는 말씀을 어기고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궤 곁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삼하 6:6,7)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더욱 자신의 뜻이나 유익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민 4:49)

기도 제목 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세. ② 교회가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낚골당 건립 및 본당외벽 석재 보수공사가 은혜중에 진행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고, 레 위인의 역할(임무)을 정한 후 신을 치고 있는 자의 부정을 제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구약의 모범으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음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신약의 영적 교훈의 내용입니다. 5~10절까지는 죄의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 람에 대하여 범한 죄도 여호와께 패역한 것으로 보고 '자복'하여 피 값을 갚을 것을 명하며 죄의 배상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필요로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사죄하고 변상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이하에는 의처에 대한 예법이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성막에서 가져온 거룩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만약에 그 여인이 범죄했으면 물이 몸속에 들어가 쓴 맛을 내어, 몸에 저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17~22, 27, 28절) 여기에서 우리들은 부부간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은밀한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결케 하는 거룩한 물이 죄 있는 자에게는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쓴 물이 되듯, 성령은 죄를 숨기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잠 28:13)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민 5:4)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교구위원회가 되게 하시며, 세움받은 일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나실인이란 '떠난 자, 분리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몸을 성별하여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서원하고 일생동안 또는 일정 기간동안 절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은 일생동안, 바울은 일정 기간동안 서원을 했습니다. 이 장은 일정 기간동안의 나실인의 율례를 다루는데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성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뜻합니다. 나실인에게 있어서 거룩을 위한 세 가지의 금지조항은 금주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주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죄의 쾌락을 탐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자신이 타인과 성별된 정결한 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시체에 닿으면 몸이 부정해지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결케 되었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롬 12:1,2) 나실인이 서약을 통해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기부인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민 6:8)

기도 제목 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6장과 7장의 중심단어는 '분리(성별) 및 헌납(헌신)'입니다. 이 두 장을 좀 더 세분하여 중심단어를 찾아보면 분리(6:1~12), 겸손(6:13~21), 축복(6:22~27), 헌납(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헌신의 생애의 중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6:22~27) 7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분리(6장)가 있는 후에 봉헌예물(7장)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물을 정결(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하여 드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물은 가인의 제물처럼 열납되지 않습니다. 한편, 회막의 봉헌식에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먼저 각 지파를 대표하여 회막과 그 재료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물용 금은 기물 및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12인이 매일 한 사람씩 같은 수량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10~13절) 이것은 '단의 봉헌예물'이라 불렸습니다.(84절)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즐겨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여러분은 무엇을 예물로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찌니라 하셨더라"(민 7:11)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처음 몇 절을 제외하고는 레위인의 성별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으나, 레위인이 장자 대신으로 선택되어 봉사하는 것입니다.(레위인의 직무는 3장과 4장 참고) 3장과 관련하여 이 장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성결로 무장되고, 거룩히 구별되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의 성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별되기 위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제물로써 드려졌습니다.(1~11절) 그와 동시에 레위인을 위한 속죄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은 여호와와의 것이 되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12~15절)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일)을 하려는 자들은 먼저 성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는 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이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택함받아 임명된 레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총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은총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편 이 장 앞 부분(2~4절)에 기록된 큰 등대는 우리가 늘 성령의 빛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민 8:6)

기도 제목 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등불을 비추게 하소서. ② 매주 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입술의 고백을, 15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지적인 복종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원수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혈의 피로 인한 구속을 믿으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성결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광야 길에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가나안 복지에 그들을 정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정결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편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에 대한 복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막 위에 있던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위에 더해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진하든지 물러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멈추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할 때 쉬거나 멈춰야 할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요 17:4) 우리들의 생애도 순간순간 자기부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민 9:18)

기도 제목 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부터는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반부(1~10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용규정을 지시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백성을 온전히 통솔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인도와 함께 청각적으로도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나팔을 주셨습니다. 중반부(11~28절)에서는 백성의 행군 진영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백성들의 행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성막 기구와 성물을 맨 레위지파의 위치입니다. 이들의 위치가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사이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29~36절)에서는 모세가 미디안 사람인 호바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군의 중심이 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35,36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민 10:33)

기도 제목 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②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의 수일간의 행군 도중에 발생한 두 번의 불평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 사건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세가 되어 있었는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의 부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 1절에서 3절에는 '다베라'에서의 불평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 가운데 내렸던 것입니다. 4절에서 35절까지는 만나 불평사건이 나오는데 백성 중의 일부가 탐욕을 품고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고민과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 백성들 중에서 장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25절)

한편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품은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 주셨으며 탐욕으로 고기를 먹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33절) 적은 소득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많은 소득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내면 물질은 도리어 재앙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민 11:34)

기도 제목 ① 삼가 모든 원망과 탐심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앞 장 후반부에 언급된 바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소요사태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장에는 바울이 마게도냐지방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1~6절),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소생시킨 일(7~12절), 그리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과(13~16절)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17~38절)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앞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22~24절)

바울의 이런 자세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이런 태도와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고후 5:14)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심령가득히 채워진 감격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와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 땅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7)

기도 제목 ① 복음의 정수(精髓)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교회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는 밀레도에서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계속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의연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 바치려는 굳은 결의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고난도, 사랑하는 가족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여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19,20절) 복음 전도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사역의 열매를 거둔 후에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따르고 핍박도 있으며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이처럼 승리의 보고서를 올려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더욱 힘을 다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합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행 21:13)

기도 제목 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폭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回心) 전후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변론합니다. 이같은 변론은 바울 자신이 왜 유대 정통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로 회심하였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배경을 밝힌 뒤에(1~4절), 어떻게 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5~16절),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변론합니다.(17~21절)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분노와 증오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울을 해치려 했고, 바울은 자신의 로마시민권을 행사하여 천부장의 보호하에 위기를 모면합니다.(22~30절)

바울이 로마시민권을 내세워 위기를 넘긴 것은 눈앞에 닥친 핍박을 두려워 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핍박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피하고자 했다면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 속으로 일부러 몸을 내던져도 안 됩니다. 성도는 바들기 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마 10:16)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약 3:15)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거나,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지혜를 주시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매순간 듣게 됩니다. 그 체험은 참 기쁨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행 22:15)

기도 제목 ① 단기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온전케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앞 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이 유대 군중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 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향한 것입니다.(1~10절), 바울의 변론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미리 전해짐으로써(11~22절), 바울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비밀리에 호송되었습니다.(23~35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방인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장차 로마로 향해 출발하게 될 항구 도시 가이사라로 그를 옮기심으로써 자신의 종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으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빈틈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절) 그는 담대하고 확신있는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2,3절) 또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충실했습니다.(5절) 그는 순결하되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6~10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黑暗)에 비유될 정도로 영적,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생활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의 교제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고 묵상하십니까? 마음이 분주하기 전, 아침 가장 소중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행 23:24)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바울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남전도회원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가이사라 주재의 로마총독 벨릭스 앞에서 행해진 바울의 재판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비밀리에 가이사라로 호송된 사실을 알게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가이사라까지 뒤따라가서 더돌로라는 변사(辯士)를 내세워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1~9절) 이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변론합니다.(10~21절) 하지만 벨릭스는 2년 동안 판결을 유보합니다.(22~27절) 이 장에서 우리는 세부류의 인물(人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길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에 결코 순종치 않는 유대인 무리입니다. 둘째, 무엇이 옳고 진실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셋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힘써 증거하면서 불의(不義)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도 바울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어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벨릭스처럼 말씀에 기웃거리지만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행 24:24)

기도 제목 ① 나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소서. ② 충현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총독 벨릭스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던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1~5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의 변론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물리칩니다.(6~12절)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 로마황제(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바울에 관하여 아그립바 왕의 조인과 도움을 청합니다.(13~37절)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이 조금도 식지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복음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바울처럼(11절), 오늘날 여러분의 행동도 양심에 거리낌없이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가 계속 주어진 사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웁니까?(13~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상황에서든, 나쁜 상황에서든 모든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신변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살파견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행 25:25)

기도 제목 ① 사탄의 제락을 파악하여 이기게 하소서. ② 총현장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총독 베스도의 요청으로 바울의 재판에 개입하게 된 아그립바는 바울로부터 바울 자신의 일생과 회심과정, 그리고 전도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습니다.(1~23절) 결국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이미 바울이 로마황제(가이사)의 직접재판을 요구한 사실로 인해 석방이 불가능함을 지적합니다.(24~32절)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변론을 통해 그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조롱하는 베스도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의 확신있는 자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하는 성도들의 본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기회가 허락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1~3절) 자기 자신의 과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 치셨습니까? 교회에서의 봉사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봉사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의(義)를 세우기 위한 마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복음 전도자는 교회 내에서의 명예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행 26:20)

기도 제목 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로마황제(가이사)의 직접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를 향해 출발한 바울 일행의 항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1~12절),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위기에 처합니다.(13~20절)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대로(21~26절), 모두들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27~44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미치게 하려는 바울의 앞길을 바다의 풍랑까지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구원계획을 진행시키려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친히 동행하셨기에,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은 풍랑으로부터 목숨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일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획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1~8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뱃사람들은 결국 큰 위기에 처합니다.(9~20절) 여러분도 혹시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했던 바울처럼(21~26) 구역예배를 통하여 자기부인과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감싸주며, 연약한 성도를 품어주는 구역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행 27:2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은혜를 주소서. ② 모든 위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두가지 이적을 언급하고 있으며 (1~10절), 이어서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15절) 또한 이 장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이루어진 두번의 만남을 언급하고 (16~28절), 바울의 로마 체류 및 전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29~31절) 이처럼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로마에서의 복음전파에 대해 좀더 상세한 언급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장의 내용은, 아쉬움을 남김과 동시에, 오늘날 세계선교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실로 바울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세계선교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적으로 인해 미개한 토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1~10절), 우리는 복음을 듣는 이들이 아무리 미개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마음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눌한 언어와 더듬거리는 전도문장으로 선교하는 선교현장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입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충현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이 사명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 28:31)

기도 제목 ① 환난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려 가정 기도 제목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진리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및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로 아는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및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을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절대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자랑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복음은 얼마나 값진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요! 오늘도 더욱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기도 제목 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 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이 장의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면서 우월감으로 자기 자신들을 치켜세움으로써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함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안다고 교만하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든지 모르든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 7:24)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1~3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9)

기도 제목 ① 모든 외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하소서. ② 당회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장로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맺힌 것은 의와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아무 쓸모 없는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셨건만 그들은 최악의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나쁜 열매만 맺은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불의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찌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한편,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신칭의의 원리와 보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엄격한 공정성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잣대를 가지고 전인류를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얻는 방법도 전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선한 행위나 신분,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성령강림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태어나면서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할례가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며, 율법 준수는 구원받은 선민의 마땅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창 15:6)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나 민족 및 혈통의 차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과 구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였고, 또 우리가 준수해야 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롬 4:24)

기도 제목 ① 언제나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22개 교회학교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존재이며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화평, 소망, 기쁨 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더이상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 바울은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출발하는 성화의 당위성도 강조합니다.(3~6절) 성도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11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쏟아 부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되며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15절)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19절)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죄의 욕망을 끊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14절) 주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어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그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는 죄로 하여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서 죄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1~6절)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聖化)의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해 줍니다. 바울도 자신을 보면서 크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24절)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깊은 탄식에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25절) 어떻게 이런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의 죄성을 늘 경계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기도 제목 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피택받아 교육중인 피택자들의 심령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5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은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만찬과 세례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매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504	벧전 2:21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자
0511	출 17:8~16	여호와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자
0518	창 4:25,26	하와에게 주신 자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자
0525	행 2:1~4	오순절 성령강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기억하라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자

| 찬 송 |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베드로전서 2:21

아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롬 8:12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이 은총을 그다지 큰 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주신 이 축복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신 축복들은 우리가 언제나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극히 적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고전 11:23,24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하라 하고

주의 만찬은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구원의 대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롬 6:10 / 그의 죽으심은 _____ 그의 살으심은 _____

사 53:6 / 우리는 다 양 같아서 _____ 여호와께 서는 우리 무리의 _____

세례를 기억하라

세례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부활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롬 6:3,4 /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마 3:16,17 / 예수께서 _____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_____ 하시니라

마 28: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_____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의 _____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까?

행 2:41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가지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전 6:20 / ☐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으로 하나님께 ☐
을 돌리라

고전 10:31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을 위하여 하라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고후 2:15 / 우리는 _____에게나 _____
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_____

고후 3:3 /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_____니 이
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_____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_____이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주의 만찬과 세례,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만찬과 세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잊고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 8:32

요 8:36

혹시 여러분은 쓸데없는 일들은 기억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완전히 행복하십시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 주의 만찬, 세례,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소서.

2과 여호와 닛시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자

| 찬 송 |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 본 문 | 출애굽기 17:8~16

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⁹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 ¹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히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¹⁵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¹⁶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깃발이신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던 그 바닷물에 의해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출 15:2,3 / 여호와와는 나의 이요 시며 나의 이시로다 그는 나의 이시니 내가 그를 할 것ियो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와는 시니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로 더할 나위 없이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이 때 아말렉 족속이 뒤쳐진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후방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 최근에 자신이 치루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뽑아 적군의 정예병들과 맞서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단지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전쟁을 관망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벧전 5:8 / _____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엡 6:12 / 우리의 싸움은 _____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_____ 대함이라

교회는 단지 설교하고 가르치며 행복하게 함께 어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설교가 위대하고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질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기금을 마련하고 개발한 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엡 6:10,11

딤후 6:12

우리는 전쟁을 잘 치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기준이 타협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확고한 영적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적을 파하는 우리의 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입니다.

요일 4:4 / 자녀들아 너희는 □□□□께 속하였고 또 □□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고전 15:57,58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을 주시는 □□□□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지칠 때도 있다

전쟁을 치르다보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손을 들고 있던 모세는 점점 지쳐 갔습니다.

출 17:12 / _____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우세했지만 그의 손이 내려갈 때면 이스라엘군이 패했습니다.

사역자들도 설교나 사역, 장시간의 연구, 가족간의 불화, 영적 전쟁 등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고단한 삶으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쟁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연약해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쳐있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서로 도울 수 있다

지쳐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출 17:12 / ... 아론과 훌이 하나는 □□에서, 하나는 □□에서 모세의 □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에 비판이 아닌 격려의 말 한마디와 기도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연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엡 4:3,4 / 평안의 매는 줄로 _____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_____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망과 음부를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20:14

요 16:33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너시”라 이름하였습니다.(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실하게 선언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능력하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2. 구역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며 기도로 돕게 하소서
3.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3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

| 초 점 |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자

| 찬 송 |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본 문 | 창세기 4:25,26

²⁵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²⁶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의 무리가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미였습니다.

창 2:18 /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_____ 줄지 못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_____ 하시니라

창 3:20 / 아담이 _____ 하였으니 그는 _____
가 됨이더라

그러나 하와는 최초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 내셨습니다.

창 3:24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중압감과 죄책감을 가졌던 하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아들, 셋을 통해 하와를 그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가인의 탄생이 안겨 준 소망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 가인의 탄생은 하와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창 4:1 /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와에게 가족과 아들을 주심으로 그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 2:23,24 / 아담이 가로되 이는 _____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_____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와의 첫아들의 탄생과 함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녀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 3:15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임한 고통

하와의 소망은 오래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하와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했습니다.

창 4:4,5 /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과 그 □□은 열납하셨으나 □□과 그 □□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 4:8 / □□이 그 아우 □□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 그 아우 □□을 쳐 죽이니라

출산의 기쁨은 하와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어머니 하와의 가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죄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창 37:34,35 / 자기 _____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_____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와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그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 자식의 죽음만큼 큰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과 고통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이 자신의 첫아들에 의한 고의적인 것이라면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파괴되었고 하와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의 출생을 통해 주신 자유

셋의 출생으로 하와에게 자유가 임했으며 고통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와는 회복되었습니다.

창 4:25

하와는 아들 아벨을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벨을 죽인 가인도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벨의 죽음과 가인의 범죄를 잇을 수 있겠습니까?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고통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든지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롬 3:24 / 그리스도 _____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_____ 되었느니라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은 하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창 4:26 / □□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이 비로소 여호와의 □□을 불렀더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녀의 첫아들은 악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의 현장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하와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와가 견뎌야만 했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마 11:28

우리 가운데 깊은 상처와 절망에 잠겨 아무도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2. 모든 구역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3.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과 오순절 성령강림

| 초 점 |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172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 본 문 | 사도행전 2:1~4

①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②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③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④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칠칠절을 대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네 번째 축제일로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밀의 수확을 축하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명하셨던 거룩한 추수감사일이었습니다.

출 34:22 / 칠칠절 곧 _____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신 16:12 / 너는 _____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찌니라

유대인들이 밀 수확의 첫 열매를 수확했던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죽음,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첫 열매였습니다. 신구약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특별한 성령강림절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요 16:8~11 / 그가 와서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고후 3:17 / 주는 □이시니 주의 □이 계신 곳에는 □□함이 있느니라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전혀 준비할 시간도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행 2:2

영적인 시간에 있어서 성령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믿음으로 모여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크고, 휘황찬란하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전 1:27 / 그러나 하나님께서 _____을 택하사 _____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_____을 택하사 _____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령은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의 시간과 장소, 방법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볼 뿐, 결코 그 계획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고전 2:10 / 오직 하나님이 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이라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성령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롬 8:26,27

체계적인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들의 규칙과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자신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빌 3:18 /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_____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_____로 행하느니라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는 비록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은 매순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날에 삼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 2:37 / 저희가 이 을 듣고 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할꼬 하거늘

행 2:4 / 저희가 다 의 함을 받고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격한 바람, 언어의 변화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줍니다.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은 120명의 성도들을 사용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종을 올리셨고 이 종은 지금도 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올릴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십자가로 路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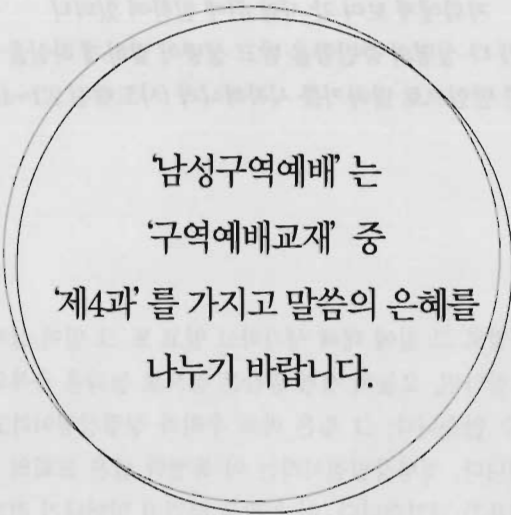
행 2:38

여러분의 가슴에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게 하소서.
2.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²⁾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1~4)

만일 정말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성령강림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성령강림절이라는 이 특별한 날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칠칠절을 대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곧 유대인의 연례적인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네 번째 축제일로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밀의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출 34:22) 곧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명하셨던 거룩한 추수감사일이었던 것입니다.(신 16:12) 유대인들이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모았던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죽음,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고 은총의 자녀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6:8~11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것은 오순절의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첫 열매였습니다. 신구약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특별한 성령강림절에 함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

이 오순절이라는 축제일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2은 말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에서 “홀연히”라는 말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간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은 정확한 하

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장소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믿음으로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크고, 휘황찬란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성령님

교회 안에서 성령은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의 시간과 장소, 방법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볼 뿐, 결코 그 계획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교역자와 장로 그리고 행정위원들은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고 분석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애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진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실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행동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의 문화와 언어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맡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소리 없이 그들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욕망과 방법들로 향하게 만듭니다. 체계적인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인간의 단체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들만의 규칙과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함께 연합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발은 인기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시스템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8:26,27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은 매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회나 담임 목사, 장로들 혹은 그 누군가에 의해 교회 일들을 운영해가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눈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신하건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급격한 바람, 언어의 변화, 한번도 말해본 적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루 만에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순간, 아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은 120명의 성도들을 사용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12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성령은 먼저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추수감사절의 궁극적인 실제 모습입니다.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을 알리는 성전의 종이 울리고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종을 올리셨습니다. 과거는 잊으십시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종은 울렸고 이 종은 지금도 울리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울릴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7,8) 이 말씀은 오순절 날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행 2:37) 그들은 기꺼이 옛 자아를 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오순절의 성령이 살아계십니까? 사도행전 2:21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새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5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